

헝다 사태 끝 아닌 시작... 中 부동산업체 디폴트 위기감 고조

● 차이나 뉴스&리포트

헝다, 3차 달러 채권 이자 지급 못해 모던랜드 등 줄줄이 부채상환 위기 연쇄도산 관련 정크본드 수익률 ↑

디폴트(채권불이행) 우려로 전 세계 금융시장을 흔든 '헝다(에버그란데) 사태'가 끝이 아닌 시작이었다.

헝다는 벌써 세번째 채권이자 내지 못했다. 다른 부동산 개발업체인 당대부동산(모던랜드), 신리홀딩스(시닉) 등도 줄줄이 부채를 갚지 못할 위기에 처했다. 연쇄 디폴트 리스크에 정크본드 수익률은 10년래 최고치로 치솟았다.

13일 외신 등에 따르면 헝다는 전일 기한인 3차 달러 채권 이자 1억4800만 달러를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23일 1차 달러 채권의 유예



헝다는 3차 달러 채권 이자 1억4800만 달러를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은 헝다(에버그란데) 그룹 본사 전경 /뉴시스

기간이 한 달임을 감안하면 공식적인 디폴트 선언까지 열흘밖에 남지 않았다. 헝다 채권 가격은 액면가 1달러의 20% 안팎까지 떨어진 상태다.

대규모 투자로 몸집을 키우던 헝다가 위기에 빠진 것은 중국 당국이 부동산

시장에서 고강도 규제를 시행하면서다. 부채비율 등 지표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추가 대출을 제한했고, 은행 부채에 의존해 사업을 확장하던 대부분의 부동산 개발업체들은 자금조달 창구가 아예 막혀버렸다.

유동성 위기는 이미 중국 부동산 시장 전반으로 확산됐다.

당대부동산은 투자자들에게 오는 25일 지급해야 하는 채권이자 상환을 미뤄 달라고 요청했다. 당대부동산은 200건 이상의 건설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당대부동산은 "유동성과 현금 흐름 관리를 개선하고 디폴트를 피하기 위해 내년 1월 말까지 자금 상환 기일을 연기해줄 것을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신리홀딩스는 스스로 디폴트 가능성을 인정했다. 신리홀딩스는 "자금이 충분하지 않아 이달 만기가 돌아오는 2억 5000만달러 규모의 채권에 대해 상환을 하지 못할 것 같다"고 공식화했다.

이미 화양년홀딩스는 이달 초 만기를 맞은 2억570만 달러 규모 부채를 갚지 못했다. 화양년홀딩스는 공시를 통해 "자금 상황과 그룹의 현금 흐름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을 평가하고 있다"고 밝

혔다. 연쇄 도산 가능성이 거지면서 정크본드 수익률은 급등했다. 수익률이 상승했다는 것은 그만큼 채권의 가치가 하락했다는 의미다.

지난 주말 이후 아시아 달러 하이일드 시장에서 중국 기업 발행자를 추적하는 대륙간 거래소(ICE) 지수의 수익률은 2009년 이후 최고 수준인 22%로 치솟았다.

루크로 애널리틱스의 아시아 책임자 찰스 맥그리거는 "투자자에게 중국 부동산 업계는 이제 시스템 전반의 리스크로 인식되고 있다"며 "중국의 하이일드 채권을 사겠다는 투자자들이 없어 수익률이 크게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중국의 5년 만기 국제 신용부도스왑(CDS)은 이번 주까지 8bp 상승한 59bp로 2020년 4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안상미 기자 smahn1@metroseoul.co.kr

산업은행, 우주·ESG분야 스타트업 투자 강화

민간 우주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 "지속가능 경제 이끌 스타트업 육성"

산업은행이 미래를 이끌어갈 우주산업과 ESG분야 스타트업 투자를 강화한다.

이는 우주산업 패러다임이 정부 주도에서 민간 중심의 '뉴 스페이스(New space)'로 변화하고 있다는 진단에서다.

특히 이 같은 변화는 재사용 로켓, 초소형 위성 등장, 데이터 기술 발전으로 더욱 빨라지고 있다. 모건스탠리는 지난해 기준 3500억달러 수준인 글로벌 우주산업 시장 규모가 2040년 1조달러까지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우리나라도 10월 말 전 세계 7번째로 독자 개발한 '누리호' 발사를 앞두는 등 기술적 성과를 보이고 있다.

이에 산업은행은 국내 우주강국도약 지원을 위해 유망 스타트업 투자를 강화하고 있다.

일례로 산업은행이 투자한 카이스트 재학생 창업기업 페리지어로스페이



서울 여의도 KDB산업은행 본점. /KDB산업은행

스는 초소형 발사체를 개발하는 스타트업으로, 2022년 중 우주발사체 시험발사를 추진 중이다.

또한 산업은행은 AI기반 인공지능 영상데이터 분석기업인 에스아이에이, 인공지능 데이터 수신(지상국) 서비스 기업 컨텍에도 투자했다.

이를 통해 발사체와 지상국, 위성 영상 분석에 이르는 밸류체인 전반에 투자했고 추가적으로 초소형 인공지능(큐브셋)을 제조하는 스타트업에도 투자를 진행 중이다.

이와 함께 산업은행은 탄소중립 실현과 지속가능한 경제구조를 이끌어 갈

스타트업 육성에도 주력하고 있다.

실제 산업은행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어려움을 겪던 파력발전 기업 인진에 단독으로 투자했다. 이 회사는 투자유치를 바탕으로 캐나다 정부와 파력발전 설치계약 체결, GCF(녹색기후기금) 주관 '기후 기술 보유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프로그램' 후보기업 선정 등 해외사업 성과를 냈다.

이밖에 산업은행은 경력단절 여성과 장애인 고용이란 소셜 미션을 수행하는 인공지능(AI) 데이터 분석기업 테스트웍스를 발굴했고 AI 기반 ESG분석 서비스를 개척하는 지속가능발전소에도 투자했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국내 대표 정책 금융기관으로서 우주산업을 비롯해 미래산업을 개척하는 스타트업에 대한 과감한 지원을 이어갈 것이다"며 "저탄소 경제로의 대전환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ESG 분야 투자도 지속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승용기자 lsy2665@

치솟는 은행대출... 가계·기업 동반 상승

주택매매·일시상환 등 자금수요 ↑

은행의 가계·기업대출 증가세가 쉽게 꺾이지 않는 모습이다. 가계의 주택매매 및 전세거래 관련 자금수요가 이어지고, 기업의 경우 분기말 일시상환 등 계절요인과 중소기업의 자금수요증가로 크게 늘었다.

한국은행이 13일 발표한 '2021년 8월 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은행 가계대출은 1052조7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6조5000억원 증가했다.

가계대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데는 주택매매 및 전세관련, 공모주 청약 관련 자금수요가 늘어난 영향이 컸다.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769조8000억원으로 전월보다 5조7000억원 상승했다. 기타대출 잔액도 281조9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8000억원 늘어났다.

한은 관계자는 "9월 중 은행 가계 주택담대는 9월 증가액 기준으로 통계 속도

치 작성(2004년) 이후 두 번째로 큰 폭 증가한 모습이다"며 "주택담대도 지난 2020년 9월, 2015년 9월에 이어 세 번째로 크게 올랐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기업대출도 전월보다 7조 7000억원 늘었다. 이는 9월 증가액 기준으로 관련 통계 속도치를 작성한 2009년 6월 이후 가장 큰 폭이다.

대기업 대출은 3000억원, 중소기업 대출은 7조4000억원 늘어났다.

대기업 대출의 경우 전월 분기말 일시상환에도 운전자금 수요 확대 등으로 높은 증가세를 지속했다.

중기대출도 코로나19 금융지원이 지속되고, 시설자금 수요가 확대되면서 증가규모가 전월 수준을 유지했다. 지난달 개인사업자대출도 3조5000억원 증가했다. 이는 9월 기준 각각 관련 통계 속도치를 작성한 2009년 6월 이후 최대 수준이다.

/백지연 기자 wldus0248@

시중 통화량 3494.4兆... 사상 최대치 경신

시중에 풀린 돈이 3494조원을 넘어 서며 사상 최대치 경신을 이어가고 있다.

한국은행이 13일 발표한 '8월 중 통화 및 유동성 통계'에 따르면 광의통화량(M2 기준)은 3494조4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50조5000억원(1.5%) 증가했다.

넓은 의미의 통화량 지표인 M2에는 현금과 요구불예금, 수시입출금식예금(이상 M1)을 비롯해 머니마켓펀드(MMF)·2년 미만 정기예적금·수익증권·양도성예금증서(CD)·환매조건부채권(RP)·2년 미만 금융채·2년 미만 금전신탁 등 바로 현금화가 가능한 단기 금융상품이 포함된다.

시중 통화량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지난해 4월 말 처음으로 3000조원을 돌파했다. 이

후 가파른 증가세가 이어지면서 매월 사상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다. 이번 증가율은 지난해 4월 이후 최고 수준이다. 증가액은 2001년 12월 통계편제 이후 최대 기록이다.

금융상품별로는 2년 미만 금전신탁이 9조2000억원 늘었고 ▲요구불예금 8조4000억원 ▲수시입출금식 8조1000억원 등이 그 뒤를 이으며 증가세를 견인했다.

경제주체별로는 기타금융기관이 18조2000억원 증가했다. 기업도 16조9000억원 늘었다. 가계 및 비영리단체는 11조3000억원 늘며 모든 경제주체가 증가했다.

단기자금을 나타내는 지표인 M1(협의통화)은 1313조7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1.4% 늘어 M2 증가율보다 주춤했다. /백지연 기자

금감원, 5년간 208개사 회계위반 지적

지적회사 고의·중과실 비율 절반 달해

금융감독원이 최근 5년간 229개 회사에 대한 혐의 심사·감리를 실시해 208곳을 지적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적 대상 회사의 고의·중과실 비율은 절반에 달했다.

금감원은 최근 5년간 총 229개사에 대해 혐의 심사·감리를 실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가운데 상장회사는 168개사, 비상장회사는 61개사였다.

신(新) 외부감사법 시행으로 인한 엄격한 감사환경 조성 등으로 중요한 회계오류 수정회사가 증가했고 지난 2019년 재무제표 심사제도 도입에 따른 경조치 회사 신속종결 등으로 최근 실

적이 늘었다.

종결 회사 수를 연도별로 보면 2016년 41곳, 2017년 18곳, 2018년 29곳, 2019년 61곳, 지난해 57곳, 올해 상반기 23곳 등으로 최근 늘어나는 추세다.

착수경위별 실시비중은 ▲회사의 회계오류 자진수정 50.2%(115곳) ▲감독·검사업무 중 인지 18.4%(42곳) ▲심사·감리 중 인지 14.0%(32곳) ▲민원·제보 접수 8.3%(19곳)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을 지적한 비율은 90.8%로, 229개사 가운데 208곳을 지적했다. 타 기관이 통보한 혐의회사(100%)와 감독·검사과정에서 발견된 혐의회사(97.6%)에 대한 심사·감리 결과 지적률이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혐의 심사·감리 결과 지적한 208개사의 위법동기는 고의 44개사(21.1%), 중과실 59개사(28.4%), 과실 105개사(50.5%) 등으로 집계됐다. 지난 2019년 조치양정기준 개정으로 중과실 위반을 엄격 적용함에 따라 중과실 비중은 낮아지고 과실 비중은 높아졌다.

고의 지적률은 민원·제보(72.2%)와 타기관통보(55.6%)가 높은 반면 과실 지적률은 오류수정(66.0%), 기획심사·감리(72.7%)가 높았다.

위반유형을 보면 당기손익이나 자기자본의 왜곡을 초래하는 중요한 위반회사가 208개사 중 172곳으로 지적회사의 82.7% 수준으로 나타났다. 해당 유형의 비중은 고의 위반회사의 경우 97.7%로 높은 반면 과실 위반회사의 경우 74.3%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